

FAX

Post-it

수신	송	발신처	발신처
번호	번호	발신처	발신처
부서/팀	부서/팀	발신처	발신처
팩스 #	팩스 #	발신처	발신처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입니다.

화수분의 전설

옛날 중국에서 써도 좋지 않는 것을 '화수분'이라고 한다. 이 말은 옛날 중국의 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을 때에 생긴 말이다. 회를 개려면 땅이 필요함에 일일이 길어다 쓸 수가 없었다. 높은 봉우리 위에 큰 동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군사 10만 명을 끌어서 날마다 황하수(黃河水)를 길어다 그 동이에 채우게 하였다. 그러고는 성벽을 쌓을 때는 그 동이에서 끌어다 쓰게 하니 군사들이 길어다 채우는 무리 써도 없어질 날이 없을 것은 물론이었다. 그래서 황하수를 끌어다 붓는 동이를 분(盆)이라 하여 '하수분'이라 하던 건데 그 말이 화수분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하수분 바가지는 이 화수 분처럼 써도 좋지 않는 바가지라는 뜻이다.

옛날 경기도 안산(安山), 지금의 시흥시인 그곳에 유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해, 몹시 가물다가 늦게서야 어찌나 큰물이 났던지, 도산을 내다보아야 겨우 들릴 것이 하나도 없는 무서운 홍년이 닥쳐왔다. 유씨 집에서도 온 식구가 여러 날 굶어 지쳐서, 드러누워 이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그날 주인 유씨도 맥을 놓고 아이들이 지쳐 쓰러진 곁에서 망하니 천장을 쳐다보고 누워 있는데 부인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들어왔다. "아이구 여보, 저팔들을 어떻게 보겠소? 여기 내 머리를 뭉뚱 잘라서 이렇게 띠래를 매놓 으니 이결 가지고 나갔다 오슈. 쌀이 되든 잡곡이 되든 주는데 좀 바깥다가 저 되있는 것들이 마지막으로 한 커라도 달게 먹어 보고 죽읍시다."

유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부인이 시키는 대로 띠래와 오망자루를 가지고 집을 나섰다. 그 띠래와 장에 가서 평소 같으면 상당한 값이 나갈 그 띠래를 단지 쌀 석 되에 바쳐 가지고 돌아온 것이다. 돌아오는 길에 마동네 뒤도람을 건너려다 보니, 동네 박서방이란 친구가 얼굴이 누렇게 부황이 나가지고 한 손에 회초리를 들고 개울가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박서방 거기서 뭘 하나?"

"영? 아무것도 아냐."

유씨는 기운 없는 중에도 가까이 가보았다. 그랬더니 비실비실 마크 뽀뽀를
친것처럼 물러 나며 역시,

"아무것도 아냐."

하고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라니?"

하고 바싹 다가가 보니, 오죽해야 그랬으랴마는 개구리를 큰 놈, 작은 놈 잡
은 것이 바가지 에 그득했다. 이거라도 먹고 목숨을 이어야겠다는 모양이었
다.

"에그, 끔찍하고 가엾어라! 여보게나, 이거 팔인데 자네 이거 나가고 바꾸
세."

"아니, 이 귀한 쌀을..."

"아냐, 난 켜찮아."

억지로 쌀자루를 떠맡기고 바가지를 빼앗았다. 그리고 개구리를 하나 하나 팔
은 생각에 나란히 엮어 놓았다. 그랬더니 최초로 한 대에 잠깐 무리였던
놈이라 물냄새를 맡고 생기가 돌았는지 한 놈이 툭탁 일어나서 뛰었다.

"울지 하나 살았다."

유씨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였다.

"울지! 또 하나, 울지! 요것도..."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할 무렵까지 그 참던 개구리는 거의 다 팔이
다. 영영 살아 나지 않는 마지막 몇 마리를 들여다보고는 '너무 호리
서 아주 죽었나? 혹 밤이슬이라도 맞으면 살아날는지' 하며 끔찍하고 일어서
는데 아까 내던진 바가지가 떠내려가질 않고 거기서 뻘뻘고 있었다. '이게
왜 떠내려가질 않을까?' 하고 물 복판에 띄워 봐도, 그냥 뻘뻘 떠돌며 흘러
내려가질 않았다. '이상도 하다' 유씨는 별 생각 없이 바가지를 집어들고 집
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굵어 늘어져 있는 아이들 생각을 하니 한심한 노릇이
었다. 돌아오는 길로 바가지는 벽장에 던져 넣어 두고 아이들이 쪼아져 있는
사이에 끼여서 멍하니 천장을 쳐다 보고 누었다. 그런데 문이 벌쩍 열리더니
부인이 들어왔다.

"쌀 팔아 온 거 어쨌수?"

"으음!"

유씨는 다른 말을 많고 고개만 가로저었다. 방안을 휘이 둘러보고 쌀자루가
없자 부인은 벽장문을 열고 들여다보았다.

"여기 쌀을 갖다 놓고도 괜히 그러셔!"

"무어?"

유씨가 엉거주춤 일어 나았는데, 부인의 손에는 쌀이 찰찰 넘치게 된 바가지가 들려 있었다. 얼마나 급하였으랴? 부인은 얼른 반을 쏟아 가지고 나가서 밥을 지었다.

"어, 밥을 짓지 말고 죽을 쑤. 지금 이 뱃속에 밥 먹었다가 큰일 나" 그리고 돌아나오는데 이런 희한한 일이 있나? 쏟아낸 바가지에 쌀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 두 부부는 마주앉아 상의를 하였다. 필연코 개구리를 살려 준 것을 용왕(龍王)이 고맙게 여기고 그랬으라는 것과, 이 어려운 고비에 우리들만 잘살려고 드는 건 죄받을 일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밤새도록 들이서 반아낸 쌀을 이튿날 날이 밝는 대로 동네 집집마다 나눠 주었다. 그러고는 흉년 고비를 간신히 넘긴 두 부부는 다시 상의를 했다.

"이만큼 은혜를 받았으면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아야지 재 본분을 각 알고 욕심을 내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하고 두 부부는 바가지를 고이 씻어 잘 간직해 두었다. 그리고 가 볼 여다 보는데 재삿날이면 으레 하얀 쌀이 가득해지곤 하더라는 것이다. 뒤 세월이 오래 지 나고 난리도 여러 번 치러 이 화수분 바가지의 행방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